

# SK가스, LPG 공급가격 대폭 인하

프로판가스 7.6% 내려 995.9원 ... E1도 994.4원으로 7.5% 하향조정

LPG(액화석유가스)의 9월 충전소 공급가격이 8월에 이어 큰 폭으로 내렸다.

LPG 수입·판매기업인 SK가스는 충전소에 공급하는 가정용 프로판가스 9월 가격을 kg당 81.48원(7.56%) 내린 995.92원으로 책정했다고 9월1일 발표했다.

자동차용 부탄가스 가격은 kg당 1389.3원(리터당 811.35원)으로 70원(4.79%) 인하했다.

E1도 가정용 프로판가스 9월 가격을 81원(7.53%) 내린 994.4원으로, 부탄가스는 70원(4.80%) 내린 1388.9원(리터당 811.1원)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.

가정용 프로판가스의 충전소 공급가격이 kg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.

E1 관계자는 “국제 LPG 가격 및 원/달러 환율이 하락해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했다”고 설명했다.

LPG 수입기업들은 사우디의 국영 석유기업 Saudi Aramco가 국제가격을 통보하면 통상 매월 말에 수입가격과 환율, 각종 세금,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9/01>